

# Hospice Care 사례 보고서

-강북삼성병원 호스피스 팀-

## 의사

### ▶ C.C

전신쇠약감, 좌측흉통, 좌완부종

### ▶ 현병력

본 39세 여환은 98. 11월 좌측 유방에 촉진되는 종괴를 주소로 내원하여 조사받은 후 병기 IV의 유방암(T4dN3M1)을 진단받고 이후 16번의 항암화학요법을 시행받았으며, 현재 병변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태에 있으며 지속되는 상기증상으로 보존적 치료요법을 위해 입원함.

### ▶ 과거력

입원/수술력: 98년 12월부터 총 18회  
당뇨/결핵/고혈압/간염(-/-/-/-)

### ▶ 가족력 (-)

### ▶ 계통적 문진

전신 쇠약감/피로감(+/+), 열감/오한(+/-),  
애성/인후통(-/-),  
좌측 유방동통(+), 변비/설사(+/-)  
소화불량/식욕부진/오심/구토(+/+ +/-)

### ▶ 이학적 소견

외견상 만성병색을 보이고 있었고, 결막에 경도의 빈혈 소견이 있었으며, 좌측 유방에 괴사성 출혈양상을 보이는 거대한 종괴가 17 x 17 cm 크기로 만져지고 있었다.

### ▶ 검사실 소견

R-CBC 4800-8.7/25-211K(seg 85%)(PT 100%)

#### Blood chemistry

Ca 8.8mg/dl, IP 3.9mg/dl, glucose 87mg/dl,  
BUN/Cr 11.3/0.7mg/dl, UA 3.9mg/dl,  
T-chol 117mg/dl, TP/alb 6.7/3.1mg/dl,  
ALP/LDH 168/1697mg/dl, GOT/GPT 28/11,  
G-GTP 34mg/dl, Na/K/Cl 142/5.0/111mmol/L,  
pre-alb/transferrin 13.6/101mg/dl  
CA125 / CA 15-3 1200/240.21

### ▶ Chest PA

Lt. Pleural effusion

### ▶ Chest 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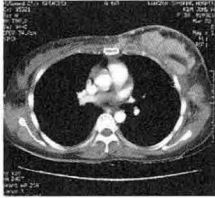
Diffuse inflammatory Ca. In left breast with multiple LAP in Lt. Axilla, Lt. Internal mammary, Lt. Supraclavicular area

WBBS : Unremarkable

### ▶ Problem Lists

1. Breast cancer(stage IV) with malignant pleural effusion
2. Poor oral intake with general weakness
3. Lt. Chest pain with Lt. Arm swell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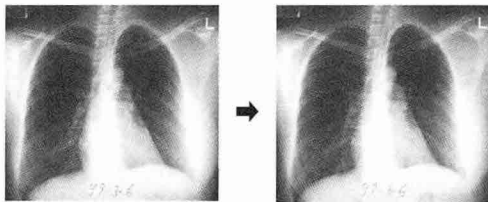
● Stage IV : T4dN3M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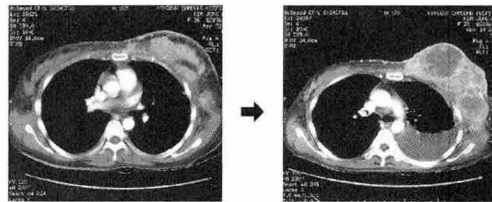
● Chemotherapy : Adjuvant Neoadjuvant Palliative NOS None

Regimen	No	Date	Resp.	Wt/PS
CMF-VP	2	98.11/28-99. 1/16	PD	52/1
Navelbin Cisplatin	5	99.3/23-99. 8/16	SD	53/1
CAF	1	99.9.9	SD	54/1
TP	4	99.10/2-00. 1/5	PD	53/1
Ifosfamide Navelbin	2	00.2/12-3/15	SD	51/1
Capecitabine Oral Etopo	2	00. 4/13-00.5/10	PD	51/1

● 99-3월



● 00-4월



● Pain Control

월/일	Pain Score	MSCO (mg)	Rescue morphine(iv) (mg)	Acetaminophen650	Fentanyl P (ug)
4/14	8 → 2	30	10	4T	q 3 days
4/20	9 → 5	240	20	4T	↓
4/21	9 → 6	390	50	4T	
4/24	9 → 4	530	30	4T	
4/27	8 → 2	690	40		
4/30	8 → 2	720	20		
5/2	8 → 3	840	40		
5/3	9 → 2	1020	80		
5/6	9 → 3	1140	80		
5/14	9 → 2	1640	180		
5/16	9 → 4	1440	80		

## 간 호 사

### 1. 환자의 정보

#### 1) 현 병력

본 환자는 39세 여자환자로 1999년 2월 18일 좌측유방에 촉지되는 종괴를 주소로 내원하여 검사 시행 후 '병기 IV 유방암' 진단을 받고, 16회 항암 화학요법(항암주사 14회, 경구투여 2회)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지속적으로 진행, 악화되는 상태이고 보존적 치료를 위해 2000년 4월 11일 입원하였다.

#### 2) 환자의 신체사정

식욕부진, 오심, 구토 등의 증상으로 영양상태가 불량하였고, 전신쇠약감 및 흉통, 부종과 좌측 유방에 괴사성 출혈양상을 보이는 종괴가 촉지되었다. 내원당시 V/S은 혈압 130/80mmhg, 맥박 90회/min, 체온 36.7도로 측정되었고, 의식은 명료하였고 만성적 병색을 띠고 있었다.

왼쪽 상박에 부종이 심하였고, 양측 하지 부종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구강점막은 매우 건조하였고 궤양이나 욕창은 보이지 않았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일상생활 수행정도는 호흡곤란으로 침상에서 앉은 자세로 거의 눕지 못하고 침상의 식탁에 엎드린 자세로 잠깐 눈을 붙이는 정도였다. 이동은 휠체어로 가능하였고, 친정어머니가 주로 돌보며 보호자 역할을 하였다.

### 2. 환자의 주요증상 및 간호중재

#### 1) 말기암으로 인한 통증

좌측 흉통과 유방 통증이 심해 통증지수가 8~7로 처음에는 Morphine sulfate 근육주사로 통증을 조절하였으나 점점 투약 간격이 짧아져 하루에 50mg~80mg을 투여하였고 추가로 MSCONTIN 600mg/day을 경구투여하였으며 통증이 심할때는

Fentanyl Patch를 적용하여 통증지수 2~4정도의 통증 완화를 시도하였다.

#### 2) 호흡곤란

진행된 유방암이 폐까지 전이되어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으나 산소마스크에 잘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 하고 답답해 하여 PRN으로 사용하였다. 환자는 참을성이 많고 내성적 성격이라 표현을 제대로 하지 않고 얼굴을 찡그리고 참는 편이었으므로 신체적, 정서적 안위도모에 주력하였다.

밤에 잠자기 전에는 MSCONTIN을 투여해야만 수면을 조금 취할 수 있었으므로 밤동안 호흡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자주 병실로 찾아가 호흡 및 수면 상태를 확인하였다.

#### 3) 부종 및 괴사

왼쪽 어깨로부터 팔까지 너무나 심한 부종이 나타나 있었고, 손등은 만지기만 해도 터질 것 같은 상태였다. 환자복을 입을 수가 없어 환의 대신 목 부위가 넓은 반팔 면티셔츠를 입고 지냈다.

부종상태가 확연히 눈에 들어와 늘어진 라운드 티셔츠 사이로 통통 부은 어깨가 노출되어 옷을 올려줄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했다. 또한 왼쪽 유방은 괴사가 심하게 나타나 있어서 매일 상처치료를 하여 이차적 감염을 지연시켰다.

환자가 상처를 보여주기를 몹시 꺼려하였는데 다행히도 치료는 열심히 받으려고 하였으므로 가능하다면 치료하는 의사를 교대하지 않고 한 사람이 지정해서 하도록 하여 환자의 privacy를 배려하였다.

#### 4) 우울증

환자는 7남매 중 셋째이며 결혼하여 중학생인 아들이 한 명 있었고, 남편은 2년 전에 집을 나가

소식이 단절된 상태였다. 집안살림과 생활비는 친정어머니가 가끔 도와주었고 입원비는 넉넉치 못한 형제들이 조금씩 모아서 도와 주고 있는 상태였다.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는 친정 어머니는 심장병을 앓고 있는 상태였고, 집을 나간 남편은 살고 있던 집의 보증금마저 가져간 상태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으며, 아들의 주거문제와 병원비, 생활비 등이 환자를 더욱 힘들고 우울하게 만들어 신경정신과 의사의 협진과 사회사업가의 면담을 의뢰하여 정신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였다.

환자의 입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간호부 주최로 바자회를 실시하여 수익금을 전달하였으며, 사후 아들의 거취 문제로 아이의 고모와 상담하여 고모가 한시적으로 조카를 돌보기로 하였다.

### 3. 평가

입원 초기에 환자는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죽음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려는 심리적 방어를 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처한 현실을 수용하려는 의지를 보여 치료팀과 자원 봉사자들은 자연스럽게 환자에게 접근하여 돌볼 수 있었다.

항상 차분하고 조용한 모습으로 기회있을 때마다 기도하였고, 통증을 호소하기 보다는 먼저 참으려고 하였다. 통증은 참는 것만이 미덕이 아니라는 충고 아닌 충고로 통증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다행히 통증 조절이 잘 되어 환자와 보호자의 고통을 줄일 수 있었고 환자는 2000년 5월 23일 사망하였다.

## 참 아름다운 사랑

나의 사랑이 소중하고 아름답듯 그것이 아무리 보잘 것 없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사랑 또한 아름답고 값진 것임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나의 자유가 중요하듯이 남의 자유도 똑같이 존중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남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 자기 자신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그 실수를 감싸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남이 나의 생각과 관점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옳지 않은 일이라 단정짓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너 때문이야'라는 변명이 아니라 '내 탓이야'라며 멧떡은 미소를 지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기나긴 인생 길의 결승점에 1등으로 도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억누르기 보다는 비록 조금 더디 갈지라도 힘들어하는 이의 손을 잡아주며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받은 것들을 기억하기 보다는 늘 못다준 것을 아쉬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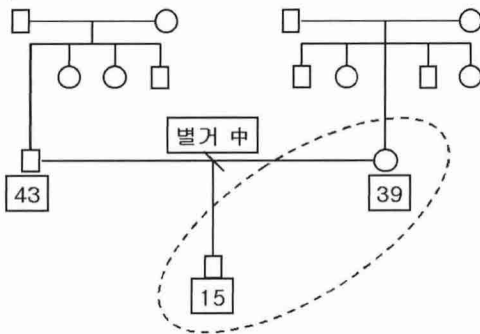
참 아름다운 사람...  
당신을 사랑합니다...

## 사회사업가

### 1. 일반적 사항

- 이름 : 김 〇〇
- 성별 : 여
- 나이 : 39
- 직업 : 무
- 학력 : 고졸
- 종교 : 기독교
- 결혼상태 : 2년 전부터 별거
- 자녀 : 아들(중2 재학 중)
- 경제상태 : 하(기초생활수급권자)
- 정보제공자 : 환자

### 2. 가족 구성도



### 3. 입원력

2년 여전에 유방암 진단받고 현재까지 수 차례 본원에서 항암치료 받았으나 현재 유방암 3기 진단 받은 Hospice 대상 환자임.

### 4. 개인력

상기 환자는 2남 5녀 중 셋째. 형제들과 우애는 좋으나 모두 경제적 여건이 좋은 편은 아니라고 하며 각각 지방에 흩어져 살기 때문에 자주 만나기 힘들다고 함.

환자는 발병 전에 가정적이지 못하고 이기적이었던 남편과의 불화를 줄이기 위해 많이 참고 살았다고 하며 동네에서 과외를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했다고 함.(이 당시 남편의 직업은 분명하지 않았으며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함.)

2년 여전에 병원으로부터 환자가 완쾌되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환자가 입원해 있는 사이에 남편은(보증금 500만원 - 45만원) 월세로 있던 집을 몰래 빼서 나간 이후로 현재까지 연락이 없다고 함. 환자는 자신이 건강이 좋지 않아 육체적 노동조차 하기 어렵게 되자 생활보호 대상자 신청을 하였고(1종) 현재까지 월 15만원 보조금과 국민은행에서 보조해 주는 월 3만원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함.

주거가 일정치 않아 환자와 아들은 따로 지내고 있는 상태임(환자는 퇴원 후에는 거의 교회의 전도사 집에서 보낸다고 하며 아들은 친구 집 등에서 지내고 있음).

현재 환자는 심장병이 있는 친정 어머니가 돌보고 있으며 자신의 '죽음'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병원비 문제, 사후 아들의 생활문제 등) 친정 어머니가 충격을 받을까봐 자신의 상황에 대해 편하게 얘기할 수 없어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임.

### 5. 주요 문제

- 경제적 문제(5월 2일 현재 입원비 160만원 중 60만원만 납부된 상태)
- 주거문제(무주택자)
- 자녀양육과 관련된 제반 문제들.
- 가족역할위기

### 6. 개입계획

- 환자가 주로 호소하고 있는 문제사정.
- 간호부에서 실시한 바자회 수익금을 지원받기

위해 간호부장과 협의

- 후원자 발굴을 위한 지역사회자원 조사.
- 환자 사후 자녀의 보호자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가족상담.
- 장례절차에 대해 가족상담.

### 7. 개입결과

- 사회봉사단 회의를 거쳐 바자회 수익금 중(총 120만원) 80만원을 환자에게 지급
- 자녀는 친척(고모)이 돌보기로 함.
- 거주지 구청에서 후원자를 선정받을 수 있게 정보제공.

### 8. 사후관리

이 가정은 가장의 부재와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환자의 근로능력의 상실, 그리고 미성년자인 아들로 구성되어 있어 심리적·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다. 환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였고 이 부분에 대한 Social Worker의 도움을 필요로 하였다.

#### (1) 경제적 측면

- 환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였으므로 환자의 가족들에게 정부지원으로 장례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과 그에 따른 절차 등에 관한 정보제공.
- 정부지원금(생계비) 수취에 대한 정보제공과 자녀가 적절히 관리할 수 있게 교육.

#### (2) 심리사회적 측면

- 자녀양육과 관련된 가족과의 상담을 통해 고모가 돌보기로 함.
- 환자의 거주지 동사무소와의 연계를 통해 남편의 연락처를 찾은 후 남편과 전화상담.
- 현재 아들과 함께 살지는 않으나 1주일에 한번 정도는 만나고 있으며 자녀의 용돈이나 학비 등을 일부 부담하고 있음.
- 자녀는 환자의 죽음과 관련된 불안한 감정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태로 학교생활 잘 하고 있으며 고모 가족들과도 잘 지내는 등 생활상의 특별한 문제를 보이고 있지 않음.
- 남편은 본원에서의 환자에 대한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함. 자녀양육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의 원조만 요청.

## Hospice에서 사회사업가의 역할

### 1. 개입 전 준비과정

- 사회사업가는 '인간존엄'의 가치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야하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잔존능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 사회사업가 스스로가 '죽음'에 대해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상황에

따른 대처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 사회사업가는 현재 환자의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환자와 그 가족들의 개별적인 Needs에 맞는 개입방법을 세워야 한다.

(이 때 환자와 그 가족과의 rapport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 충분한 자원 및 정보획득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료수집과 자원발굴 업무를 수행한다.

- 효과적인 Service 제공을 위해 치료진들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맺어야 한다.

## 2. 환자, 가족에 대한 사회사업가의 역할

### 1) 심리적 측면

주로 상담을 통하여 환자와 그 가족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지지, 격려, 현재의 상황에 대해 환자와 가족원에게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게 하여 환자 사후 발생 할 수 있는 제반 문제들에 대해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한다.

### 2) 경제적 측면

입원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원활용을 통한 경제적 지원과 조정을 한다.

이 때 경제력 조사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사회사업가의 한계를 명확히 밝혀 환자와 그 가족들로 하여금 현실 가능 이상의 것을 기대하지 않게 한다.

### 3) 사회적 측면

임종을 앞둔 환자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남은 시간들을 단지 '환자'로서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가능한 사회적 요인들과 관계를 갖을 수 있게 하고 정리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환자 사후 가족에게 미칠 사회적 변화에 가족들이 이전과 다름없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정자,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 4) 사별가족 서비스

사별가족 서비스는 환자 사후 그 가족의 구조와 역할이 변화됨으로써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 또는 완화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사회사업가는 가족이 안정감과 용기를 갖도록 지지적인 상담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감

을 갖을 수 있게 하며 peer groups과의 만남을 통해 심리적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말기 환자의 가족 역시 환자와 마찬가지로 그 질병에 가족원 모두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환자가 사망하기 이전부터 개입을 시작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사업가는 가족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스스로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여 자신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게 한다.

### 5) 자원 활용적 측면

사회사업가는 환자와 그 가족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Hospice 봉사자와의 연결.
- 일반 자원봉사자는 가족 도우미로 활용할 수 있는데 가사보조, 아이 돌보기, 반찬제공 등.
- 환자 상태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에 따른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 후원자 개발

## 3. Hospice 팀 내의 사회사업가의 역할

총괄적인 care를 위해 Hospice는 Team approach를 한다.

- 사회사업가는 환자와 가족의 사정된 자료를 팀원에게 제공하여 팀원 각각의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전제 : 팀원의 역할이 중복되지 않게 조정)
- 사회사업가는 '환자 우선'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모든 치료과정이 환자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게 조정.
- 팀원간 협조체계 구축.
- Hospice 활동의 효과성을 위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홍보활동을 한다.

## 자원봉사자

## 환자와의 만남과 헤어짐

“세상에는 우리가 찾아내서 할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숨어 있음을, 물방울처럼 작은 힘도 함께 모이면 깊고 큰 사랑이 바다를 이룰 수 있음을 오늘도 새롭게 배웁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걷는 이 길에서 매마름을 적시는 자비의 마음 어두움을 밝히는 사랑의 손길이 더 많이 더 정성스럽게 빛을 밝히는 세상에 살고 있어 행복합니다.” 시인 이해인 수녀님의 ‘새롭게 사랑하는 기쁨으로’ 시의 한 부분입니다.

저는 지난 98년 11월 무지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마치고 그해 12월 첫 주부터 매주 금요일 호스피스 환자를 보살피기 시작하여 3년 6개월 동안 봉사하면서 그동안 함께 했던 봉사자들과 저를 사랑하는 가족들의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 오늘도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환자들은 주단위로 바뀌기도 하고 항암제를 맞을 때마다 입원하기도 하는데, 암과 투병중 임종이 가까워서 입원하여 일이주만에 세상을 떠나는 분도 계시고 이삼개월 후에 떠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환자와 가족들을 돌보는데 말은 그다지 많이 필요하지 않았고 마음으로 가슴으로 만나 사랑과 우정을 쌓았으며 가족들의 관심과 필요에 응답하는 배려와 친절, 이런 일들이 그분들의 생명을 더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환자들의 대부분이 처음에는 미소를 보이며 대화에 응하지만 상태가 진행되면서 말이 점점 없어지고 커튼이 침상에 드리워지고 가족과 의료진들이 들락날락 하다가 그들은 떠나갔습니다.

사월초에 만나뵙고 오월 그름에 세상을 떠나신 김중희님은 2000년을 맞이하여 보살 핀 환자 가운데 여섯 번째 이별한 환자입니다. 처음 병실을 방문

했을 때 그녀는 머리가 모두 빠져서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분홍색 모자가 예쁘다고 하니 그녀 또한 미소로 나를 맞아 주었습니다.

몸을 좀 주물러주겠다고 하니까 깨끗하지 못할 거라고 염려하면서 간신히 몸을 맡기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정성껏 마사지를 해주었는데, 부기가 빠지는 듯 하고 몸이 가볍고 기분이 좋아졌다고 하여 제 마음도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그녀는 일년반 전에 가슴에 열이 심해 병원을 찾았는데, 유방암 말기로 생명의 기간이 2개월정도 밖에 남지 않았음을 의사로부터 선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작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1개월 전부터 전신의 부종으로 다시 입원했으며 이때 딸을 방문한 친정어머니와 중학교 2학년인 아들도 함께 만났습니다.

두 번째 만남을 가졌을 때, 다시 찾아주어 고맙다고 했지만 너무 힘겨워 더 이상 말을 이어나가지 못했습니다. 저 또한 할말을 잃고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녀의 어깨와 팔은 계속 마사지 해주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지만 우리는 서로 무엇인가 통하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눈빛으로 교감이 오고 갑니다. 그때 힘들게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한마디 하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해서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만났을 때는 굳은 몸이지만 매우 밝은 표정으로 반갑게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맞아 주었습니다. 그녀의 몸을 보았을 때 아무런 표현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한 모금의 물을 마시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고 자리에 앉아 있는것도 누군가에게 의지해야만 하며 누울 수도 없어 베개를 끌어안고 앉아 있어야 할 정도로 몸에 많은 변화가 있었



니다.

발, 다리, 손, 가슴에 심한 부종이 있었고 목 뒤 쪽은 돌같이 굳어 있었고 어깨는 럭비선수 같았으며 목은 전혀 움직일 수 없었고 손과 팔은 밀가루 반죽을 만지는 것처럼 만지는 대로 변했습니다.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도 변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곁에 계신 어머니가 잠시 눈을 붙이시도록 하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참 후에 입을 연 그녀는 아들이 어리니 아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며 남편에 대한 노여움을 말하려다가는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슴에서 심하게 흐르는 염증을 어느 날에는 깨끗하게 속까지 소독하고 닦아주는 데 어느 날은 걸만 치료해주고 간다고 했습니다. 또한 의사선생님들이 스쳐가듯이 돌아보고 가는 것은 아무래도 자신이 치료할 수 없는데 까지 온 것이 아니겠냐며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위로를 했지만 나의 말이 그녀를 노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그래도 기운이 좀 있고 충기가 있을 때 힘을 모아 아이와 형제, 어머니께 하고 싶은 말들을 생각이 나는대로 하세요 우리 모두는 예정된 시간이 있겠지만 또 모르잖아요”라고 하니 알겠다고 담담하게 받아 주었습니다.

또 이러한 일들이 우리는 크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작은 일일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 믿음의 사람이라 선지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주었습니다.

한 주가 지나 네 번째 만남을 가졌을 때 그녀는 너무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사람을 볼 수 없어 엎드린 채로 베키에 얼굴을 묻고 목소리로 분별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왔다고 가까이 가서 귀에 대고 얘기하니 “기다렸어요” 하며 반가움을 표현했습니다. 부어 있는 얼굴이 지난 주 보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몸 전체가 탄력이 없고 손과 가슴 목은 돌과 같이

굳어 있고 나머지도 심한 부종이 만지는 대로 변했습니다. 어떤 형태로도 누울 수 없어 계속 앉아서 잠도 잔다고 하는데 그 모습은 누구라도 가슴이 저미는 아픔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의 마지막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내게 자신과 같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 돌봐달라고 했으며 약간은 예민해진 목소리로 언니가 보고 싶으니 빨리 오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연락을 드리니 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때는 병원 장례식장공사 중이라 임종을 했거나 임종에 가까운 때에 자신들의 형편에 맞는 가까운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다섯 번째 만남은 건강하고 예쁜 영정 속 사진이었습니다. 23일 오전에 떠났다고 병원 전도사님께 연락을 받고 홍제동 동신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내를 두고 떠났던 남편이 영정앞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고 아들과 가족들도 만났습니다. 그녀는 모든 이에게 좋은 기억들을 많이 남기고 갔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연락처를 받아들고 돌아서며, 짧은 만남이었고 많은 대화를 할 수 없었지만 사람의 가는 길에 필요한 순간의 만남이었던 사람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난 그녀를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저희 봉사자들은 체험과 나누기 활동에 필요한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내용들을 전문의와 간호사, 목회자의 강연 및 토의 등을 2개월에 한번씩 모임을 갖고 암의 유형, 치료방법, 증상을 이해시키는 것과 하는 것 보살피는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환자를 방문할 때 환자의 건강상태를 먼저 파악해서 환자에게 적절한 필요와 보살핌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구체적인 체계가 잘 되어있지 않고 있는데 방문 시에 좀더 심리적 육체적 도움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부족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관심 있는 분들과 봉사자들 사이에 잘 조절이 되리라고 믿습니다.